

Overweight
(Maintain)

전기전자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삼성전자 75" 마이크로 LED TV



LG 65" 8K OLED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슈 코멘트

전기전자
CES 2019 관전 포인트

올해 CES에 대한 관전 포인트로서 1) TV는 8K의 원년을 맞아 고화질 및 초대형 경쟁이 가속화하는 한편, 마이크로 LED, Rollable 등 진일보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일 것이고, 2) 가전은 AI와 IoT 기술이 더욱 확장된 스마트홈을 구현할 것이다. 3) 5G를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 증강/가상현실, 모빌리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4) 자동차는 신형 전기차와 자율주행 신기술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 전기전자 시각에서 CES를 바라 볼 포인트

'CES 2019'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력해진 AI, IoT, 5G,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서, 첫째, TV는 8K의 원년을 맞아 고화질 및 초대형 경쟁이 가속화하는 한편, 마이크로 LED, Rollable 등 진일보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일 것이다. 둘째, 가전은 AI와 IoT 기술이 더욱 확장된 스마트홈을 구현할 것이다. 셋째, 5G를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 증강/가상현실, 모빌리티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넷째, 자동차는 신형 전기차(Benz, Byton 등)와 자율주행 신기술들이 공개될 예정이며, 업체별 전기차 전략 및 로드맵의 변화가 관심사다.

이 밖에도 국내 IT 기업들이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이며 신수종 사업으로서 육성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 TV는 8K 주도권 싸움

TV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98" 초대형 8K QLED TV와 75"로 소형화한 마이크로 LED TV를 공개한다. 마이크로 LED는 화면 크기, 화면비, 해상도, 베젤 등 기존 디스플레이의 4가지 제약을 없앤 미래형 디스플레이라고 강조한다.

LG전자는 88" 8K OLED TV와 Rollable TV를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주력 사이즈인 65" 8K OLED를 공개해 OLED 진영의 8K 경쟁력을 지원할 것이다.

Sony, Sharp, Hisense, TCL 등 일본과 중국 TV 업체들도 8K 경쟁에 본격 가세할 것이다.

TV도 AI 기술을 접목해 화질, 사운드, 스마트 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AI 음성비서 플랫폼으로서 Google Assistant와 Amazon Alexa가 양강 구도를 구축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Bixby와 LG ThinQ를 앞세운 자체 플랫폼 전략과 함께 Google 및 Amazon의 플랫폼과 연계한 협력 전략을 병행해 갈 것이다.

삼성전자 75" 마이크로 LED TV



자료: 삼성전자

삼성전자 8K QLED TV



자료: 삼성전자

LG Rollable 디스플레이



자료: LG디스플레이

LG 65" 8K OLED



자료: LG디스플레이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EQC 전기차



자료: 메르세데스-벤츠

기아차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R.E.A.D.)



자료: 기아차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8/01/01~2018/12/31)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81	96.28%
중립	6	3.19%
매도	1	0.53%